

# 서민 금융 원스톱 종합상담센터 자리매김

##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 개점 1주년

### 140억원 지원...대상자 44% 신용등급 상승 소상공인에 세무·상권분석 등 무료 컨설팅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가 개점 1년 만에 지역 서민 금융의 원스톱 종합상담센터 자리잡았다. 18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포용금융센터는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경영컨설팅을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0일 문을 열었다. 광주은행의 설립 초심을 되새기며 1968년 창립 당시 본점에서 새롭게 출발했다. 그동안 600여명의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에게 포용금융특별대출을 통해 14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280명의 소상공인에게 마케팅·세무·상권분석

등 무료 경영컨설팅을 실시했다. 특히 송중옥 은행장의 경영철학인 이익 이상의 가치 추구를 위한 역점사업의 첫 번째인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 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다. 또 광주시 동구청과 광산구청, 한국의 직업중앙회 광주지회, 광주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금지원과 전문 경영컨설팅,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무료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개점 1년 만에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고객의 높은 만족도가 입소문을 타며 포용금융센터를 이용한 고객의 44%가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기존 2금융권과 대부업 등 고금리대출

이용한 고객을 1금융권으로 포용하려고 실시하고 있는 CMS(신용관리서비스: Credit Management Service)를 통해 신용등급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자 500여명의 고객 중

218명 고객의 신용등급이 최고 4등급까지 올랐다.

포용금융센터는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으로 돌리려던 소상공인들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신용등급 상승으로 1금융권과의 거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포용금융센터를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송중옥 광주은행장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금융이 바로 포용금융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금융 처방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고, 더불어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민에게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는 광주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 경제 프리즘

### 쿠팡, 3분기 고용 3위 기업

쿠팡의 고용 인원이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18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쿠팡과 이 회사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4만3,171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로써 2분기 말 기준 고용 규모 4위였던 쿠팡은 3분기에 LG전자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국내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다.

쿠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직후인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1만3,744명의 신규 일자리(국민연금 가입자 수 기준)를 만들어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일자리 창출에는 배송직원이 '쿠친'(쿠팡친구) 수 증가가 큰 몫을 했다. 쿠팡은 지난 7월 말 쿠친이 1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 대기업 거래증기 비밀유지 계약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20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양측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기부는 향후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 자금세탁방지 교육 세미나

신한은행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은행권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세탁방지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고도화 사례와 글로벌 기준 자금세탁 방지 체계 등을 공유하고, 은행권 실무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 AI(머신러닝)를 활용한 의심거래보고(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위험평가모델 고도화 ▲ 로보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관련 동향 등을 다뤘다.

##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지원 저조

### 3만2,000명 수령...지원액 상향 요구도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도전 장려금 지급이 정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소상공인에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을 시작한 이후 이달 16일까지 3만1,768명이 1인당 50만원씩 총 158억8,400만원을 받았다.

재도전 장려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한 달 보름가량 지났지만, 정부 목표치(20만명) 대비 지급 비율은 15.9% 정도에 그쳤다. 연말까지 모두 지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이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폐업사실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1시간짜리 온라인 재기 교육을

받아야 해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소진공은 지난달부터 별도 증빙서류 없이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1시간의 교육이수를 선택 사항으로 전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는 1시간 교육도 부담이라는 민원이 있어 선택 사항으로 바꾸는 등 최대한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단체는 재도전 장려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50만원인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모두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 광주신보, 하반기 소상공인협의회 개최

광주신보보증재단(이하 광주신보)은 최근 '2020년 하반기 소상공인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증 지원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태풍·장마로 인한 재해 피해 소상공인들이 증가했다.

특히 원가 폭등, 환율 변동 등 국내·

외 상황들로 인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광주신보는 여러 상품을 통한 적극적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변정섭 광주신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코로나19 피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오비맥주가 비알코올 맥주 '카스 0.0' 시음 행사를 전국 대형마트에서 전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오비맥주 제공

## 오비맥주, 비알코올 '카스 제로' 시판

### 전국 대형마트서 시음행사

오비맥주가 비알코올 맥주 '카스 0.0(카스 제로)' 시음 행사를 전국 대형마트에서 실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비맥주(대표 배하준)는 카스 제로 355ml 캔 출시를 기념해 전국 대형마트 30여 곳에서 시음 이벤트를 실시한다. 카스 제로는 일반 맥주와 같은 원료를

사용하고 동일한 발효 및 숙성 과정을 거친 후 마지막 여과 단계에서 '스마트 분리공법'을 통해 알코올만 추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알코올 도수 0.05% 미만의 비알코올 맥주이지만 맥주 고유의 짜릿하고 청량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카스제로는 앞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 한전KDN, AMI시험센터 개소

한전KDN이 나주 혁신도시에 지능형 계량인프라(AMI) 품질시험센터를 구축하고 18일 개소식을 가졌다.

한전KDN AMI 품질시험센터는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AMI 설비에 대해서 품질관리와 성능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시험장소로 운영할 예정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AMI 발전과정과 미래 스마트 에너지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표현한 AMI 홍보관도 마련했다. /우성진 기자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